

KOSTA에서 발견하는 청년부흥의 비결[2]

- 객수광 목사 / 2003. 6. 16 -

지난번 칼럼에서 저는 청년 학생들이 코스타에 몰려오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몰려오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수양 회 기간 중에 학생들이 보여주는 뜨거운 열의는 더욱 놀라운 것입니다. 사실 코스타 수양회는 굉장히 무식한 집회입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잘 때까지 거의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밥 먹고 이동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시간이 찬양, 기도, 말씀, 세미나, 특강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농땡이 피우거나 슬슬 바깥으로 도는 친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인기 있는 세미나 시간에는 미리 번호표 확보하느라 아우성이고, 심야에 임시강의 해 달라고 조르기도 합니다. 수양 회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열기와 긴장과 흥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무엇보다도 저는 그 이유를 젊은이들을 사랑하는 강사님들에게서 찾고 싶습니다. 코스타에 오시는 강사님들을 보면 연세에 상관없이 공통점이 있는데 청년들보다 더 청년 같고 청년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코스타는 강사 비를 드리지 않는 수양회로 유명합니다. 오실 때 비행기 값도 드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강사님들은 오실 때 청년들을 위한 헌금까지 가지고 오십니다. 다른 수양회와 달리 강사들을 위한 특별대우도 거의 없습니다. 학생들과 같은 숙소에서 자고, 학생들과 같은 음식을 먹고, 수양 회 시작부터 끝까지 학생들과 함께 맨 앞자리에 앉아서 강의를 듣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뻑뻑한 시간표 틈틈이 개인적으로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을 일일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기도해 주고 하다 보면 정말 수양회 끝나면 녹초가 됩니다. 게다가 강사숫자도 다른 수양회와 비교할 때 엄청 많습니다. 한국에서 한 분 모시기도 어려운 강사님들이 그렇게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어떤 교수님이 국력낭비의 현장이라고 농담을 하셨습니다. 정말 어떤 때는 꼭 이렇게 까지 해야 되나? 너무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낭비처럼 보일 정도로 쏟아 붓는 사랑에 청년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압니다. 아주 정확하게 압니다. 아 이 강사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정말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고 있구나, 소위 젊은이들 말로 그렇게 필이 딱 꽂히면 그 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랑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한 청년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잘못된 삶의 길에서 돌아서고, 이기적인 현세적인 야망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는 사람이 된다면 그 어떤 것도 결코 낭비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 같은 사람 하나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보다 더 큰 낭비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을 위한 거룩한 낭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청년들에게 그런 사랑을 쏟아 부어줄 수만 있다면 코스타와 같은 사건들이 그런 운동들이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된다고 믿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거룩한 낭비를 하는 리더십, 그런 교회를 청년들은 찾고 있고 우리 주님도 찾고 계십니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